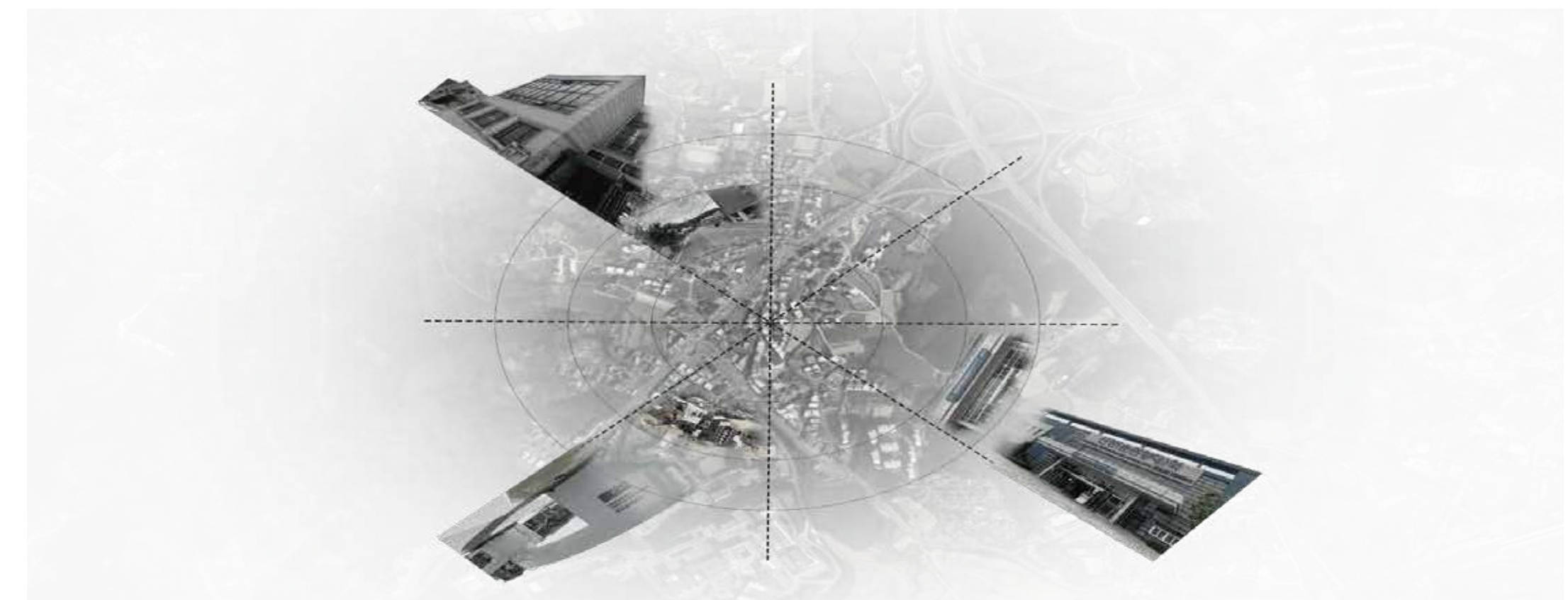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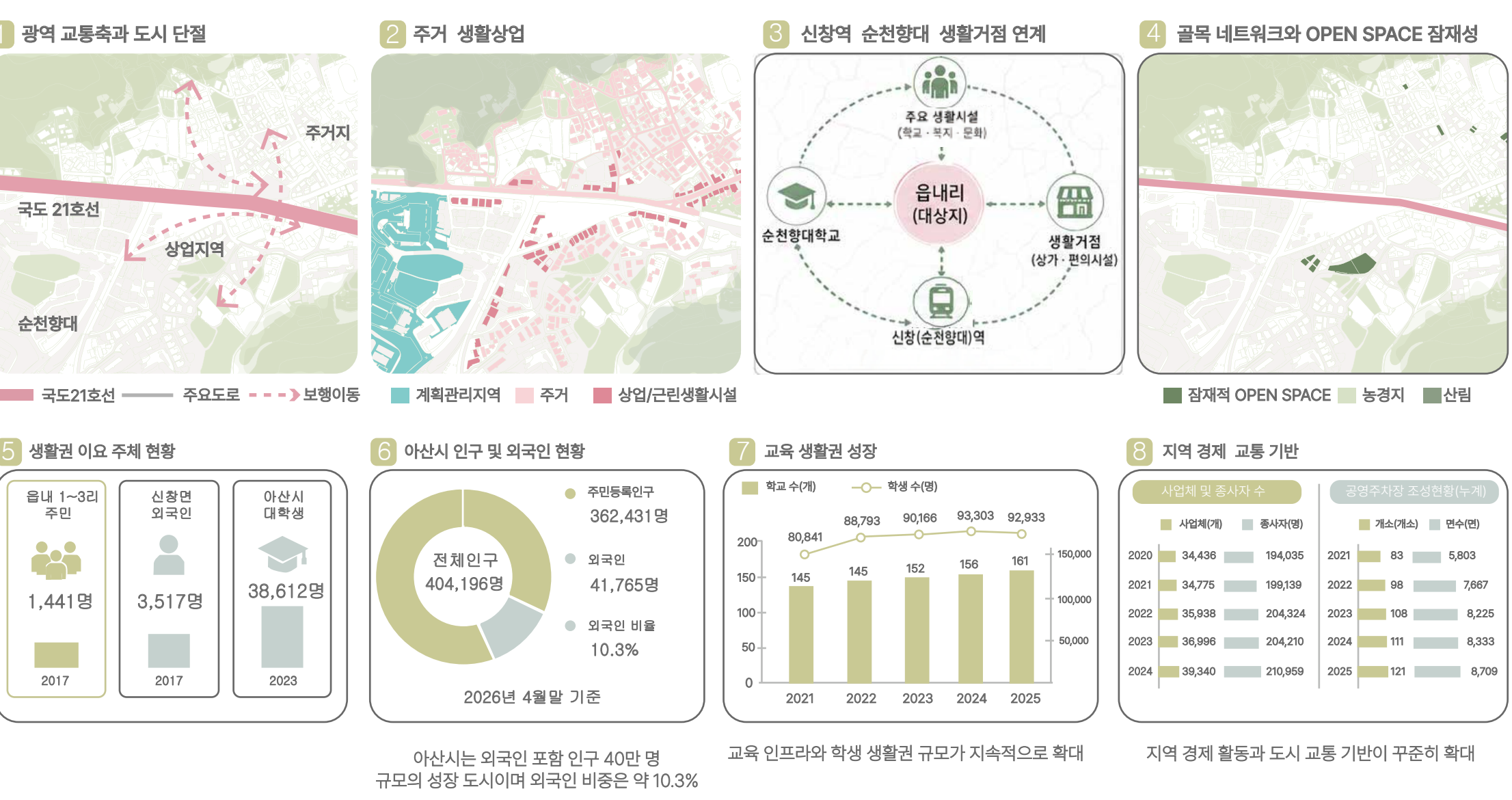


PROLOGUE



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는 과거 지역의 중심지였으나, 고속화된 21번 국도가 마을의 허리를 가로지르며 물리적 심리적 단절을 겪고 있다. 대학생들은 마을 안쪽의 지역 사회로 스며들지 못한 채 경계면에서 머물고, 다문화 이주민과 기존 주민들은 지역의 활력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. 본 프로젝트는 이 견고한 단절의 경계에 건축적 시놉스를 제안한다. 21번 국도를 가로지르는 문화·스포츠 복합 브릿지는 단순히 길을 잇는 보행로를 넘어, 청년의 에너지와 주민의 일상 이 교차하는 입체적 플랫폼이 된다. 이제 신창은 단절된 변두리가 아닌, 대학과 마을,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의 다름을 공유하며 새로운 문화를 피워내는 상생의 생태계로 재탄생한다.

SITE ANALSIS



SWOT

S

- 순천향대학교의 풍부한 청년 에너지
- 우수한 광역 교통 접근성
- 신창항교 등 역사 자산 및 글로벌 식문화

W

- 국도 21에 의한 남북 공간 분절
- 원도심 내 상권 및 주거 시설의 쇠퇴
- 대학생과 지역 주민/외국인 간의 교류 부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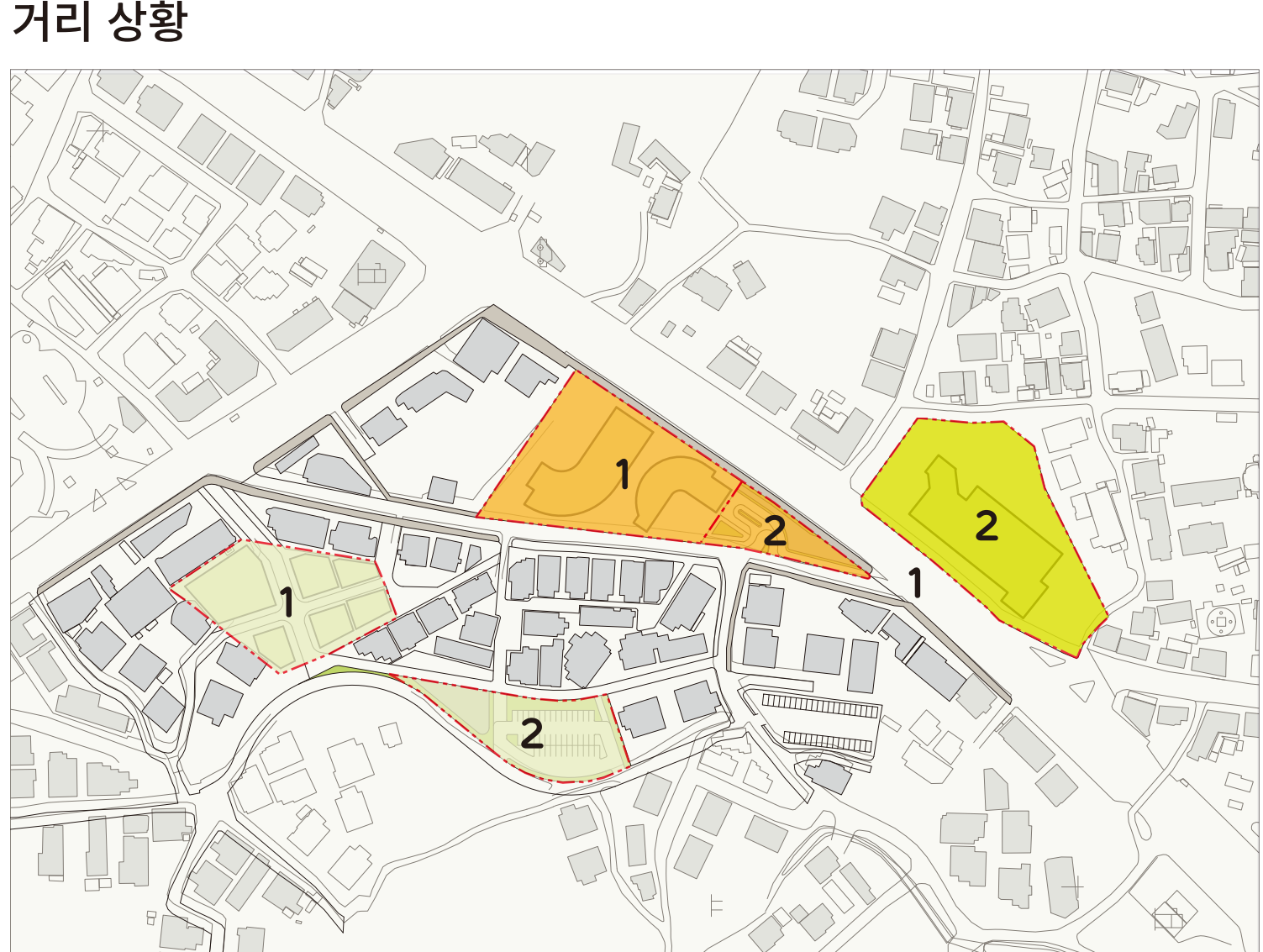
O

- 아산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
- 청년 및 다문화 커뮤니티 공간 필요성
- 대학가 배후 상권의 원도심 유입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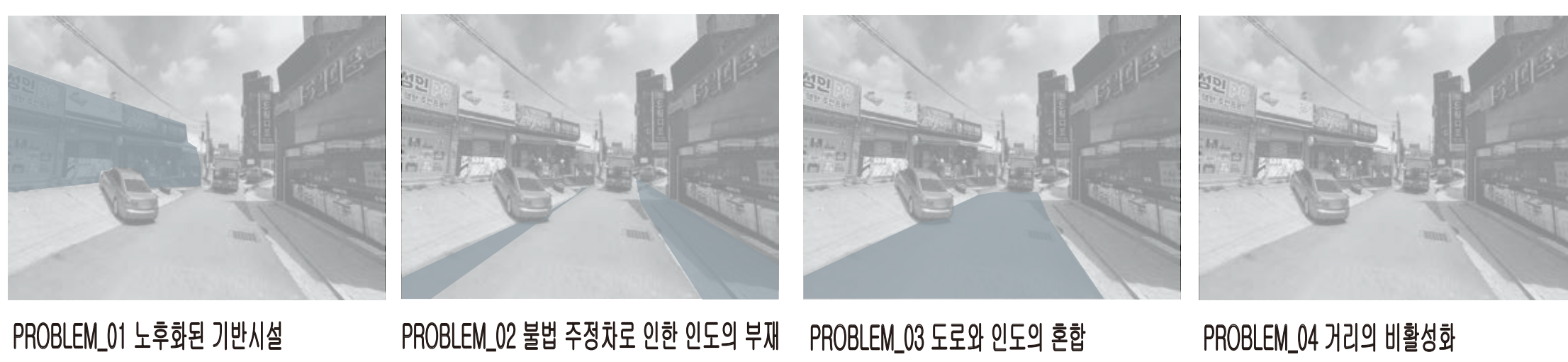
T

- 신축 아파트 단지로의 인구 이동 가속화
- 내 / 외국인 집단 간의 잠재적 갈등
- 고속화 도로의 소음 및 매연 문제

STREET CONDITIONS



PROBLEM



SOLUTION



LINK STREET : 일상을 잇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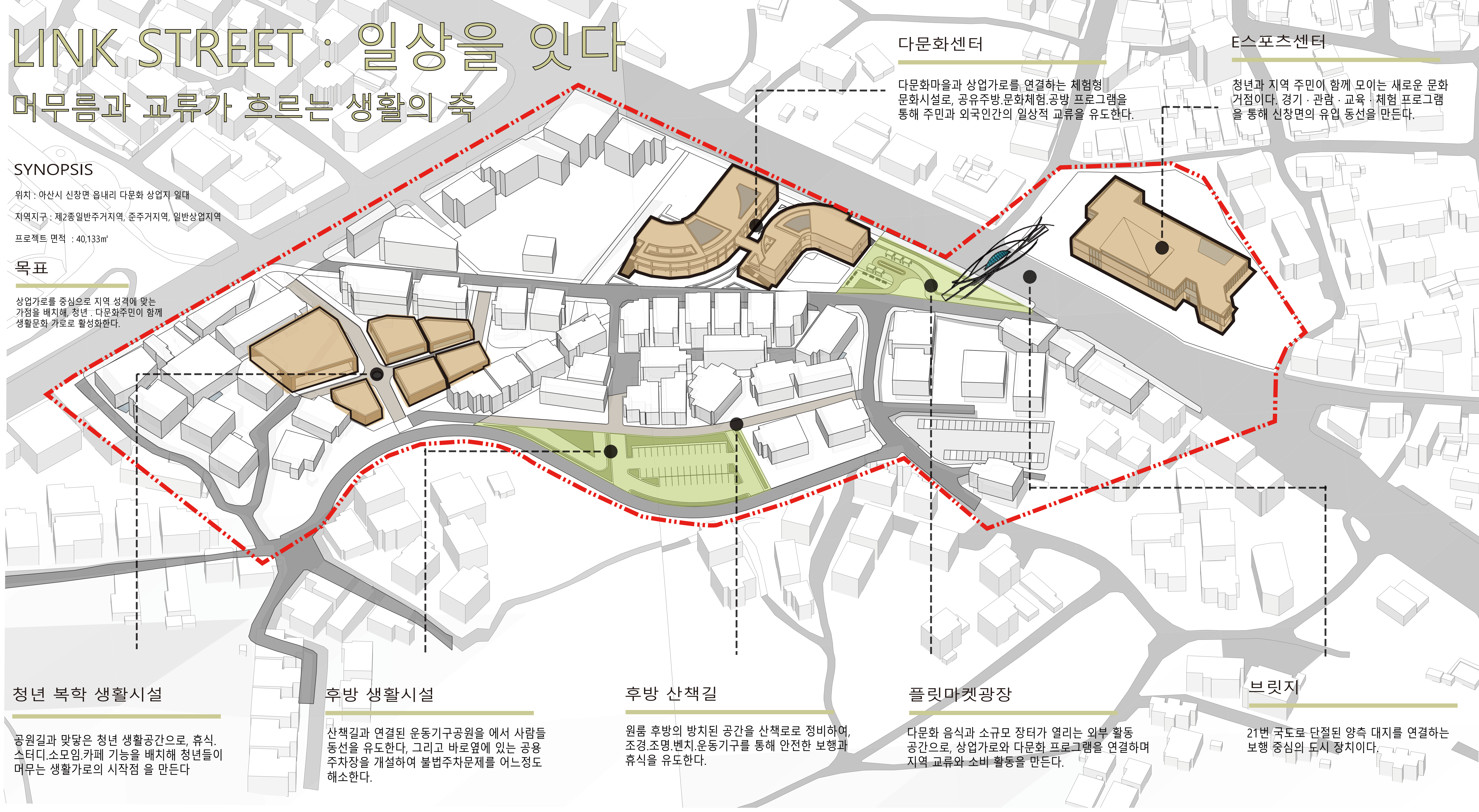
머무름과 교류가 흐르는 생활의 축

SYNOPSI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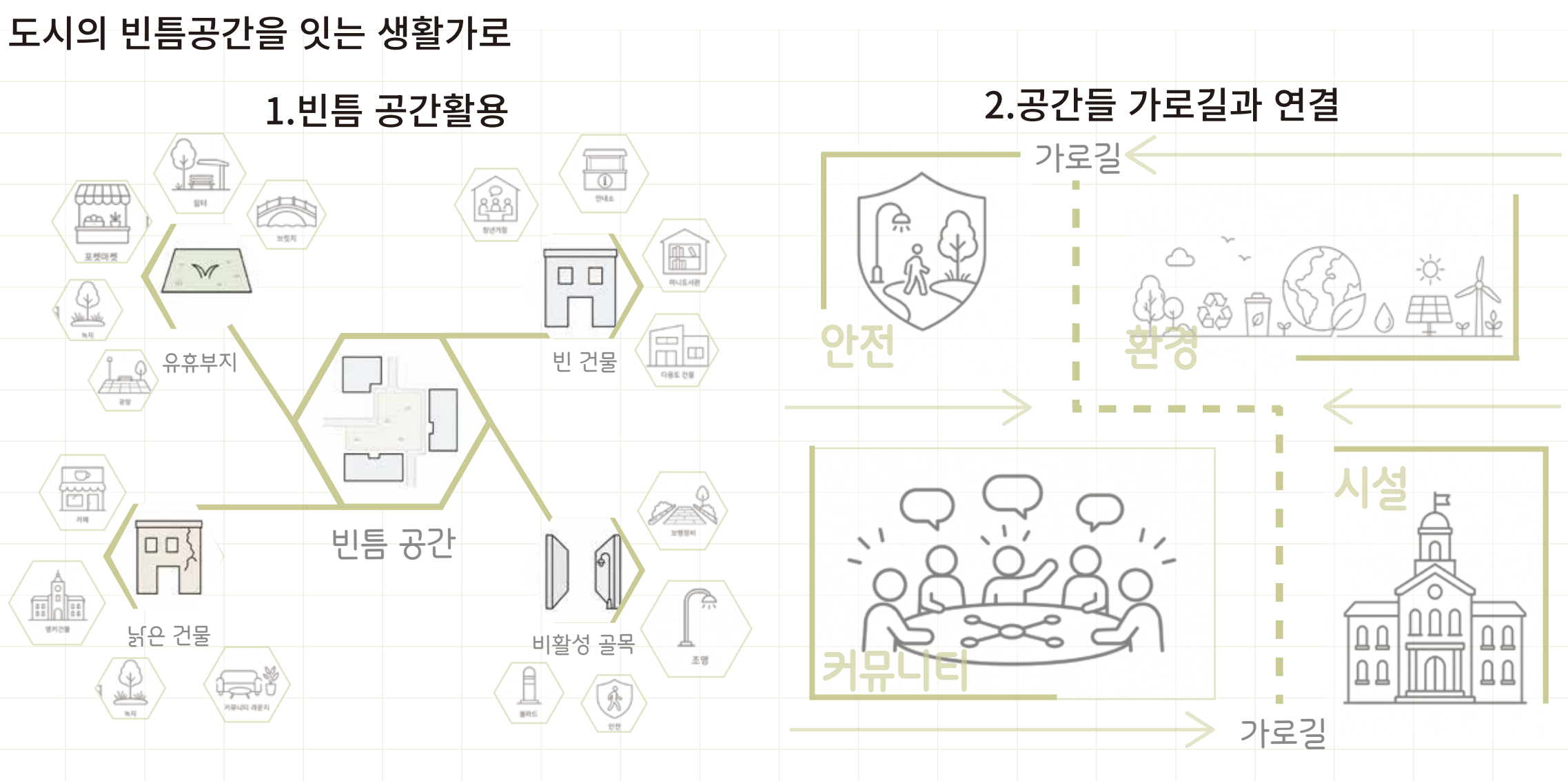
위치 :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다문화 상업지 일대
지역지구 : 제2종 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, 일반상업지역
프로젝트 면적 : 40,133㎡

목표

상업가로를 중심으로 지역 성격에 맞는 가점을 배치해, 청년·다문화주민이 함께 생활문화 가로로 활성화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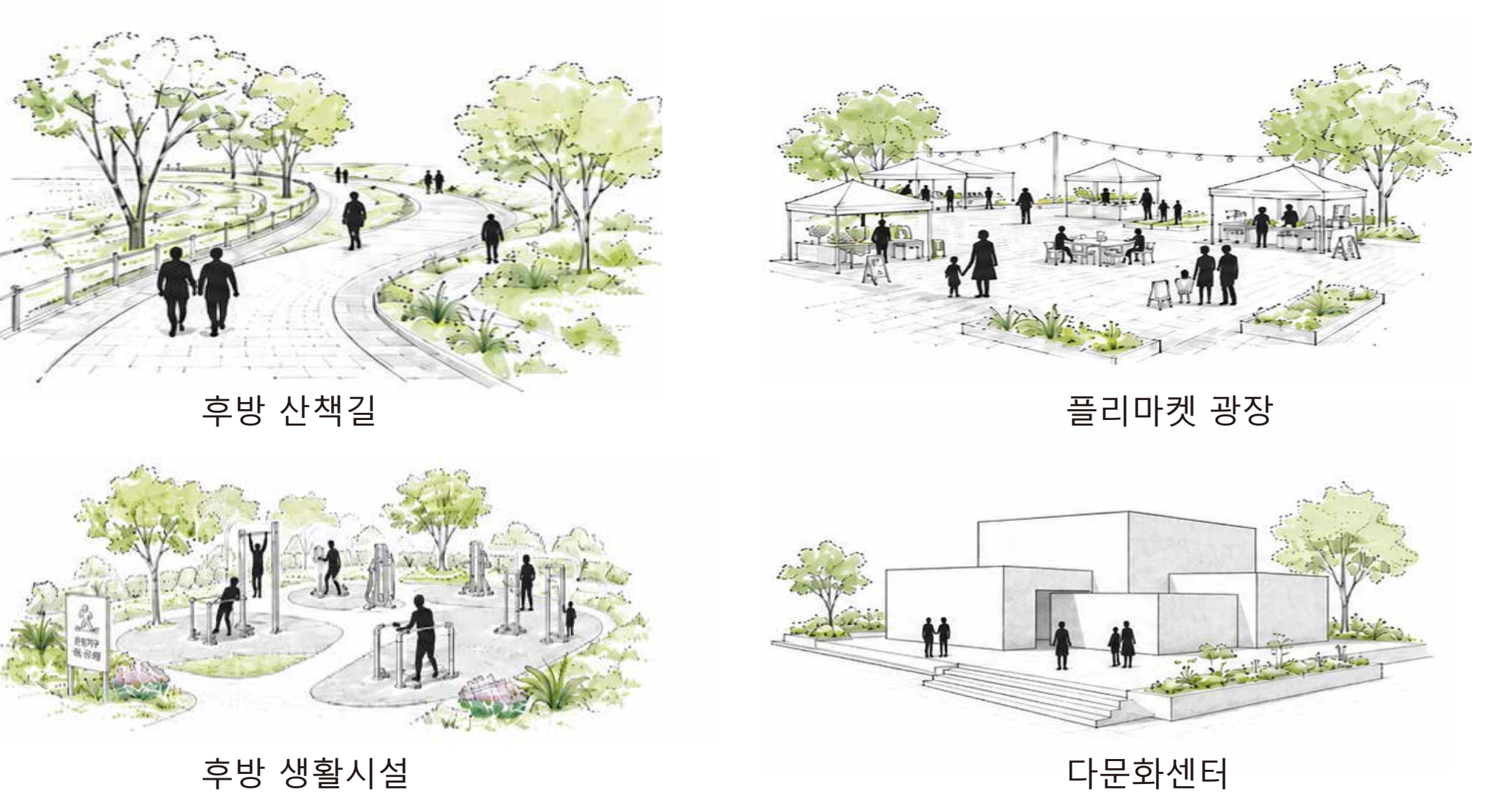
CONCEPT



LIVING BAS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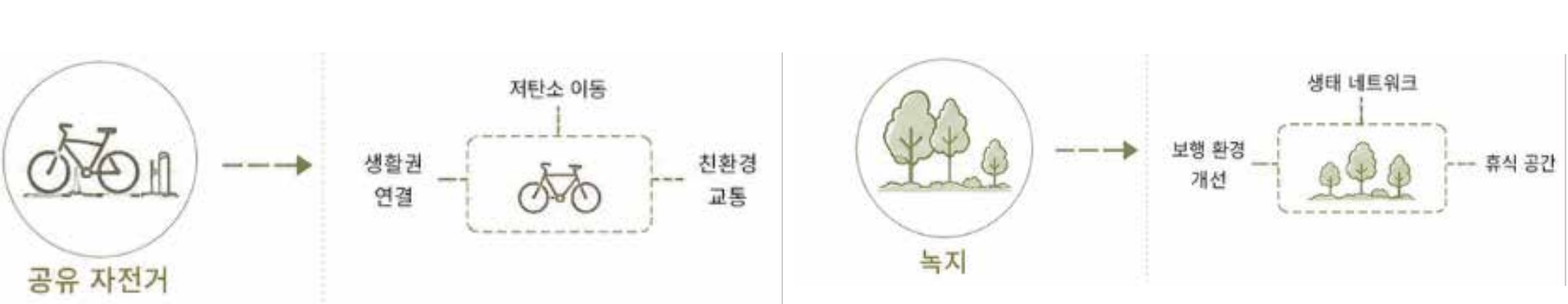
PROGRAM



MAIN STRATEGY



ECO-SYSTEM



PERSPECTIVE

